

지역 매 아리

'강남스타' 최고 싸움소 등극

김제시, 로컬푸드 현장방문 지도

김병철 김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내 로컬푸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판매 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김제시의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제시는 2013년 백구농협을 시작으로 2014년 동김제농협, 2017년 공덕농협이 각각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지역 중소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에 힘쓰고 있으며 개장 이후 참여농가?출하량도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김제 로컬푸드는 김제시의 중소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급식(학교급식, 구내식당 등)에도 공급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소비처를 확대하여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철 소장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로컬푸드 다각화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에 흠어져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관리를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완주말문화축제 성료

완주말문화 축제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완주군은 말 산업 육성책 시행에 따른 국내 승마분야 수요확대 및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한 완주말문화 축제가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완주공공승마장 예정 부지내에서 열린 말문화축제는 승마체험, 마상무예공연, 품종별 말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축제기간동안 말품종 전시, 말먹이 주기, 승마체험 및 마상무예공연(1일 2회)으로 평소 접하지 못했던 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축제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3일 연휴기간 동안 진행돼 말먹이 주기, 승마체험과 마상무예 공연에 관람객들이 몰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포니(작은말) 승마체험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말문화 축제를 계기로 미래 농촌관광의 새로운 소득수단으로 승마 및 미래 승마인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서 창원시 진순호씨의 소 우승

지난 2일부터 5일간 3만여명 방문... 한강급 김해, 태백급 정읍 각각 우승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출전한 진순호씨의 '강남스타' 소가 전국 최고의 싸움소로 등극했다.

완주군은 전국 싸움소의 왕중왕을 가리는 제14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화산생활체육공원에서 3만여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속소싸움협회 완주군지회(회장 박운배)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완주군, 전국민속소싸움협회, 축산단체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유명한 싸움소 162두가 출전했다.

각 체급별로 백두,한강,태백급으로 나뉘어 추첨 대진표에 의한 승자 대결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창원시의

'강남스타' 소가 백두급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해시의 '장흥' 소가 한강급에서, 정읍시의 '뽕우'가 태백급에서 우승을 해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특히, 백두급(771kg 이상)에서는 우승한 강남스타는 4강전에서 전년도 완주대회 백두급 준우승자인 '백두' 소와 만나 30여분을 싸우고 우승했으며, 결승전에서도 20여분의 긴 결투 끝에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탑' 소가 백두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대회기간 최고의 이변으로 꼽혔다. 한강급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 '범용' 소(완주군 김용범)는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을 차지, 지역주민들의 아쉬운 탄성을 자아냈다.

이외에도 황금송아지(금10돈) 4개, 한우사골세트, 자전거 등의 경품과 어린이들을 위한 과자선물, 어버이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가 열려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우협회 완주지부에서는 한우시식회와 완주낙우회의 우유시음행사가 열렸고 화산농협에서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국 면단위 최고 한우사육 지역인 화산면에서 개최한 소싸움대회는 화산면과 완주한우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3만여 명의 많은 관람객들이 연휴를 맞아 많이 찾아주어 소싸움을 즐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전국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부대 병사들 관내 영업소 이용료 10% 할인

김제시,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김제시는 관내 일부 일반음식점과 이·미용 영업소를 이용하는 김제대대 군복착용 병사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지난 4월 사회·직능단체 간담회에서 관내 군부대 병사들의 평일 외출 및 외박을 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관내 영업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군인 할인을 반영하여 줄

것을 김제시 예비군 지휘관들로부터 건의 되었다이에 김제시는 김제대대 병사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의식업 및 이·미용업 각 지부의 협조와 안내문을 통하여 참여 희망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음식점 78개소와 미용업 김제시지부 자원봉사회원업소 10

개소 그리고 이용업은 김제시지부 회원 전 영업소가 자율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기침체로 영업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 결정하여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리한다고 전하였다.

김제시는 참여 업소에 대한 현황은 김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김제대대에 이용 안내문을 발송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산면,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 가져

김제시 황산면(면장 강갑구)은 8일 이장 및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파프리카 농장에서 찾아가는 이장회의를 개최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이장회의는 기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던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관내 파프리카 영농현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방문한 에이스팜(대표 강철기)은 첨단 유리온실에 파프리카를 재배(2만4,000㎡)하여, 수출을 통해 농업경쟁력 높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면민의 화합

을 도모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강철기 대표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파프리카 재배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관경을 시추해 줄 것을 건의



김제시 황산면은 8일 이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파프리카 농장에서 찾아가는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했으며, 파프리카 재배 현장을 직접 안내하며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줬다. 강갑구 황산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고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어버이 은혜 사랑해孝 감사해孝 함께해孝”

김제시,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황

김제시는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를 헤아리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의미를 기리고자 '어버이 은혜 사랑해孝 감사해孝 함께해孝'라는 주제로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행 풍토 조성에 이바지한 한국

로 교원동 박은진 주무관외 3명에게 김제시장상을 수여하였다.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강을 기원하며 박준배 시장을 비롯하여 김중회 국회의원, 내인권·황영석 도의원과 관내 유관기관장 10여명이 다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노년을 제창하고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였고, 권설경평양예술단의 공연 및 행운권 추첨 등 2부 축하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그간의 시름을 덜어주는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후손들을 길러 오신 모든 어버이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널리 전파되어 건전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이날 행사를 통해 참존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평소 효행을 실천한 민경을 최정화외 13명에게 김제시장상을,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용진읍 '윤강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평균연령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완주군 용진읍 윤강회(회장 이일구)가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나섰다. 8일 용진읍에 따르면 용진읍 윤강회 회원과 지역 기관사회단체 100여 명이 최근 용진읍 소재지 주변 생활쓰레기와 하천 불법 폐기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용진읍 윤강회는 평균연령 65세 이상 용진읍 노인들을 중심으로 동양의 오랜 덕목인 삼강오륜 실천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지키자는 취지에 1953년 간중리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어르신을 위한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일구 윤강회 회장은 “다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윤강회는 더욱 살기 좋은 용진읍, 세대 간 이해와 배려로 지역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정재조 용진읍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많이 배웠다”며 “이 뜻을 섬겨 용진읍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